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예배 후에 교육관에서 4월 임원회가 열립니다.

다음 주일은 청파교회 설립 10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를 기념하는 공감음악회가 오늘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5월 기도의 밤으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 교회설립기념 특강이 열립니다. 강사는 김희권 목사(숭실대학교)입니다.

여선교회에서 들기름과 참기름을 판매합니다. 들기름은 한 병에 7,000원 참기름은 8,000원입니다. 멀치도 판매합니다.

5월 설거지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로비에 있는 신청서에 신청해주세요.

5월 12일에 초록장터가 열립니다. 이를 위해서 의류, 도서, 장난감, 유아용품, 가정용품 등을 기증 받습니다. 집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정리해서 기증해주세요.

연하디연한 나뭇잎과 꽃잎을 만져보며 목상해 보십시오. 물론 나뭇잎과 꽃잎이 상하지 않게요.

행 11:1~18 / 시 148
계 21:1~6 / 요 13:31~35

마10:5-15
----------

식 당 봉 사 : 정영선 홍춘숙 김희우 김현주 김경혜 최종미 임창선 김대근
다음 주 식당봉사 : 이영란 이현순 이소애 이소혜 김진경 이승진 이봉옥 강세기
오늘설거지봉사 : 이종배 고정림 김용훈 이원영 김재환 김진선 정현선
다음 주 설거지 : 류준모 심호선 김기성 이은정 김영아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일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청파교회



생명의 바람, 평화의 물결 되어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이 쉽게 잊치락뒤치락 거리는 우리를 붙잡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와 ‘나는 도대체 어찌된 사람인가’ 사이를 오가는 인생입니다. 주님을 거울삼아 자신을 비춰보며 바른 모습을 찾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닮은 모습을 점점 더 많이 발견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파란 잎이 돌아오고 어여쁜 꽃들이 피어나는 계절에 농부들은 본격적인 농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땅을 갈아엎고 씨앗을 뿌립니다. 영혼의 농부이신 주님, 우리의 영혼도 새롭게 갈아엎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 밭에도 참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 헌금 영수기 ·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곽상준 최경미 김근종 정옥영 김문주 김성우 박유경 김승현 김수진  
 김신실 이순용 김윤수 김종문 김현주 문금석 박병구 박영희 박준희  
 이기분 방민방 준배부레 백성래 변재민 이소혜 서수진 송임희  
 안세희 양재성 임미심 윤미경 윤정덕 구성실 이경남 이봉옥 이인웅  
 오송경 이준림 임고운 임승동 백혜숙 장원호 박성희 정완수 김재광  
 조경자 조병주 한인철 조윤숙 홍성식 이유리

### 감사헌금

강순배 권미정 김정진 김혜정 김진선 김재환 손규현 오보영 정완수  
 김재광 정현모 허호범 박성실 홍춘숙 황경순 무명6

### 녹색꿈

윤정덕 구성실 이소애 이소혜 황현성 이오복 무명5

장노김장정박권이이안정박김이신장	혜순재영경홍미형영혜재범진영	숙옥흥영숙경미정숙선경흥석식숙	백박최신진곽박김윤오서조오이곽	혜성경영정권미금수현정정향자근상	숙희경영숙희영순진정순향영식준	송노서이정박권김윤이송조	임순원명경홍미금미수양	회옥금희례재미순경정진미	박야이장조곽김이김정백	영외은영병권현봉재명영성	희옥숙주희주목광희선래
------------------	----------------	-----------------	-----------------	------------------	-----------------	--------------	-------------	--------------	-------------	--------------	-------------

마음으로 읽는 글

# 몸살

이명수

강정마을 근처 구멍가게 평상에 앉아  
 뒤집히는 바다를 본다  
 할머니가 유모차를 밀고 와 곁에 앉는다  
 할머니, 어디가 편찮으세요  
 전국적으로 다 아파

누구에게나 몸이 지구다  
 지구가 아프면 몸도 아프다  
 에티오피아가 아프다  
 탈북 난민이 아프다  
 후쿠시마가 아프다  
 강정마을, 구럼비가 아프다

전국에 강풍특보가 내려진다  
 으슬으슬 봄바람 먹은 내가 아프다  
 때를 아는 꽃몸살이다  
 그래, 아프지 않게 오는 봄날이 있더냐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형빈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자랑할 일이 생기면 좀더 겸손해지려 노력하십시오. 그 일을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나를 통해 주님이 하신 일이라 생각하십시오. 우리 삶의 중심에 내가 아닌 주님이 자리하도록 사십시오.

아멘. 기회가 될 때마다 나 자신을 자랑하려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 나를 중심에 놓고 살던 모습과 나를 척도로 삼고 살던 모습을 버리겠습니다. 그저 날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공감 음악회	5월 기도의 밤 인도 : 김기석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김인걸 장로	방준 선생 허호범 집사

4월	영접위원	윤석철 하현철 문홍일 안정숙 박홍재 박경원
	헌금위원	조병무 백혜숙

## 지름신을 떠나 야훼신께로

김기석 목사님의 설교 내용 중 자주 등장하는 개념 중 하나가, 욕망과 공포이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은 사람들을 이 두 가지 기제로 움직이고 있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요즘과 같이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전전긍긍하게 된다. 월급 외에는 생활을 보존시켜줄 꺼리가 별로 없는 입장에서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곧 생존이기 때문이다. 생존의 유일한 끈처럼 여겨지는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은 그래서 일종의 공포감이고, 그 공포감에 떠밀려 생활하는 모습은 이제 한국사회에서는 일상이 되어 있는 듯 하다.

그런데 뒤돌아보자. 이렇게 자리를 지키기 위해 공포 속에서 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삶의 규모를 너무 크게 키웠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삶의 규모를 크게 키우게 된 데에는 대체적으로 공포의 또 다른 이면인 욕망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멋지고 아름다운 옷을 보면 사고 싶고, 구매한 옷들이 점차 쌓이게 되면 옷장이 모자라게 되고, 옷장이 모자라게 되면 옷장을 확장하고, 옷장을 확장하면 집이 작아지게 되고, 집을 키워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면 은행 빛이 더 늘게 되고, 은행 빛이 늘어나면 그 빛을 갚으려고 더 많이 일해야 하고, 만에 하나 직장을 잃게 될 경우엔 모든 걸 잃어버리는 궁지에 몰리게 되는 이러한 사이클. 약간의 과장이 담겨 있긴 하지만 이런 소비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유는 현재 자본주의 생산중심의 사회 시스템이 그런 체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풍요라는 이름으로 가장된 끝없이 욕망을 부추기는 체계.

이런 구조 속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작은 실험이 있으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누고 같이 쓰는 것이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쏘카’라는

제도를 통해서, 자동차 셰어링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가격도 시간당 4천원이고 24시간에 육만 육천 원으로 매우 저렴해, 웬만한 렌터카 뺄치는 수준이다. 서울시에 있는 수백 개의 주차장과 연계되어 있어서, 접근성도 매우 높고 서울시 주관이라 믿을 만하기도 하다. 이제 서울에서는 차 없이도,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덤으로 주차에 대한 걱정, 자동차 정비에 대한 걱정, 어떤 주유소가 더 싸는지 알아봐야 하는 걱정, 자동차 세차하고, 정비하고 관리해야 하고, 보험료를 어디다 내야 저렴한지 알아보는 수고와 걱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도 혜택이라 하겠다. 과도하게 차를 몰아, 환경을 파괴하고 자원을 낭비하는 부분이 현저히 줄어들어 지구의 착한 거주민이 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의 내역을 살펴보면 항상 필요로 하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다. 일 년에 몇 번 정도만 사용해도 되는 물건들을 우리는 너무 손쉽게 질러(?)버리는 것은 아닐까? 세상은 소비하라고, 그래야 나라가 잘된다고 속삭인다. 그러나 그런 속삭임은 우리를 소비사회의 노예로 만들고, 우리를 욕망과 공포의 늪으로 끌고 들어가는 안내자일 뿐이다. 우리는 지름신을 섬기지 않고,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논리로 세상을 이길 사명을 가진 자들이다.

5월에 교회에서는 초록가게가 열리게 된다. 나에게 쓸모가 크지 않은 것들을 내 놓고, 다른 쓸모 있는 꺼리를 찾아간다면, 나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애써야 하는 에너지와, 그로 인해 휘둘러야 할 여러 가지 욕망과,, 그 욕망을 채운 뒤에 다가오는 공포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세상논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연습하는 기회가 되기도 할 것이다. 그리하여 풍요의 신 바알을 떠나, 우리 야훼 하나님께도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